

고요한 긴장을 깨며

안준태

숨이 닿는 거리. 손과 손 사이 따끔거리는 적막. 그리고 고요한 긴장을 깨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든 상황이 자신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면 당황할 것이다. 특히, 미술관이라는 하얀색 직육면체의 공간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한 행위들을 여기게 되면 그는 곧 따가운 시선과 질타를 받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모두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구조 안에서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계한다. 예측된 행동은 우리의 경험을 주도하고, 주도된 경험은 일률적인 감각을 동반한다.

그러나 암묵적인 제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앞선 모든 경험과 감각은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 박관우 작가의 작업은 바로 이 순간에 집중한다. 약속된 제도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예측 가능한 행위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그의 작업은, 관객이 더 이상 익숙한 감각에 의존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형성한다. 이러한 그의 작업물 전반에는 정동¹개념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그의 작업은 비일상의 경계로서 예술을 활용함으로써, 관객의 신체에 설명 이전의 정동을 먼저 발생시킨다. 이로써 작업은 관객의 일상적 인식 흐름을 잠시 중단시키며, 감각이 먼저 반응하는 경험의 순간을 열어 보인다. 여기서 정동은 설명과 해석이 중심이 되는 미술관이라는 제도 공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작동한다. 박관우의 작업은 관객이 작품을 이해하기 전에 이미 신체가 반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예술 경험의 순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다.

작가의 대표적인 퍼포먼스 작업인 <도슨트 프로그램>은 단순히 같이 진행되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도슨트가 관객에게 설명해주는 작업이다. 다만 관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도슨트와 관객 단 둘이서만 진행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도슨트와 관객은 서로를 이름으로 부른다는 점이 기존의 도슨트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도슨트는 ‘인터프리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관객과 소통하는 미지의 존재로 작동한다. 기존의 미술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에서는 전시된 작품들을 읽으며 지식을 제공받고, 서로 간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도 꽤나 떨어진 채 진행된다. 그러나 이 <도슨트 프로그램>에서는 둘 간의 물리적 거리 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가까워진 채 작품을 감상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인터프리터는 크게 네 가지의 규칙을 따르며 관객과 움직인다.

¹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의 설명할 수 없는 몸의 감정.

1. (관객을) 이름으로 불러라.
2. (관객과) 비밀을 나누어라.
3. (관객과) 체온을 나누어라.
4. 오늘은 유일한, 마지막 하루다.

분명 우리가 알고 있던 도슨트의 지시사항과는 사뭇 다른 형태이다. 이 작품에서 도슨트는 관객에게 미지의 존재이다. 사회적인 약속을 깨고 자신에게 침입하는 도슨트의 행위들을 관객은 끝까지, 아마 평생—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모를 것이다. 관객은 그저 끊임없이 자신의 신체에 침투하는 인터프리터를 바라보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신체의 알 수 없는 대답만을 느끼며 이 프로그램을 들어야한다. 박관우는 관객의 정동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며 관객을 일상 너머의 비밀상으로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관객은 더 이상 전시를 ‘이해하는 존재’로 머물 수 없다. 설명을 듣는 동안 관객의 신체는 스스로 반응하고, 판단 이전의 감각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놓인다. 이때 관객은 미술관에서 익숙하게 요구되던 관람자의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인터프리터의 존재는 그러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킨다.

이러한 작업은 사회적으로는 암묵적 합의를, 개인적으로는 믿음을 깨는 형태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뇌에서 벌어지는 능동추론²을 바탕으로 자신의 환경을 구성한다. 그러나 작가의 작업은 관객을 주도하는 경험을 설계하여 우리가 쉽게 믿어왔던 제도에 질문을 던진다.

작가의 작업은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한없이 작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반발을 일으킨다. 탄탄한 이론 위에서 정교하게 관객의 미적 경험을 조직하는 작가의 작업은 관객의 사고방식을 환기시키는 개념미술적 태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동시에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정동의 순간들은 우리가 믿어온 제도가 얼마나 빈약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자각하게 만든다.

² 뇌가 외부의 자극과 예측 모델 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 현대 뇌과학의 주된 이론 중 하나.